

# 조용히 갈망하는 '신화의 귀환'

## '신화'의 대중적 관심 높아져 ... 진지한 학문적 접근도

김정란

상지대 교수·불문학

신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대중의 문화적 요청은 단기적으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긴 기간을 두고 살펴보면 맥이 잡힌다. 신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살펴보다도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신화에 대한 문화적 토 픽들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것이 지적 인사들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수입문화 코드가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신화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생산된 문화적 거품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인간현상에 대한 관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신화적 관심은 훨씬 더 넓은 흐름의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다. 대중의 지적 관심은 사회과학으로부터 인문과학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 쪽에서는 정신분석학 서적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인류학서적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신화관계 서적들은 이 맥락 위에 실려 있다. 신화적 관심의 밑바탕에서 우리는 통시적(通時的)으로 고찰된 '인간현상'에 대한 관심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중이 인간됨의 의미를 더 이상 단려진 체계 안에서, 그리고 기능적으로 파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화는 인간이 세계 안에서 누대에 걸쳐 꾸어온 꿈(통시성)을 공시적(共時的)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대중적 의미에서의 형이상학, 즉 철학적 개념에 의해 구성성을 박탈당하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 형태로 제시되는 운명의 해결방식이다. 귀스토르프가 신화를 "형이상학 이전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신화서적들은 최근에 부쩍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은 언제나 출판계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뉴에이지' 명상서적들, 실용적이고 황당한 도술서적, 그보다 더 격이 낮은 무당의 자서전 같은 책들도 있다. 이런

신화적 관심의 밑바탕에서

우리는 통시적으로 고찰된

'인간현상'에 대한 관심을

읽어낼 수 있다. 감히

단언하거나 '신화의 귀환'은

인류가 조용히 영성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한가지

징후다. 철학과 과학 대신에

종교와 예술을 요청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책들은 아직도 계속 출판되고 있으며, 아마도 세기말 현상에 실려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신화'나 '신비주의'를 어떤 무지한(?) 현실도피와 망상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마취제를 제공하는 이러한 책들은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되기 시작한 신화관계 서적들은 진지하고 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에 출판되는 신화관계 서적들을 우리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신화를 수동적으로 모아놓은 경우, 둘째 신화에 대한 실용주의적 해석, 셋째 신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

첫번째 분야의 책들은 신화를 수집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일종의 신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중국·인도 뿐만 아니라 수메르 신화까지 소개되었다. 번역물도 있고, 국내 연구자의 저서도 있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신화들을 소개하는 책이 대부분이다.

국내 신화연구는 본격적인 자료수집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독자들이 읽기에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다른 문명권의 신화를 대할 때와는 달리 아주 친근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 예를 들면 김현선의 《한국의 창세신화》(길벗)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갈망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



한 건국신화를 물리치고 창세신화를 연구자료로 택하고 있다. 저자는 신화의 궁극적인 용도는 한 국가의 정치적·역사적 정통성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초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유시주, 푸른나무)나 《문명 속으로 뛰어든 그리스신들》(강웅천, 사계절)은 두번째 분야에 속하는 책이다. 두 저자 모두 신화의 대명사격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나름대로 소화한 뒤,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하려고 한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유시주는 소박하기는 하지만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신화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강웅천의 책은 다양한 도판을 곁들여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두 책 모두 평이한 수필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접근방식은 나름대로 대중의 신화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교양주의'에 머물러버림으로써 신화에 대한 진정한 해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진 시노다 불린의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과 《우리 속에 있는 남신들》(이상 또하나의문화)도 아주 실용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신화 속의 여신과 남신을 통해서 성격을 분류하려고 하는 저자의 시도는 자칫 단순한 유형학으로 환원되어버릴 위험도 있다.

### 신화적 보물의 발견

이 분야에서는 《세계의 영웅신화》(까치)

나 《신화의 힘》(고려원) 같은 조셉 캠벨의 책들이 단연 돋보인다. 캠벨은 평이한 서술을 통해 신화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의 삶 안에서 왜 중요한가를 아주 힘차게 설득한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박학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신화가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영적 정보의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책은 현실적 한계를 부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정되는 인간적 특수성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생성 중인 어떤 열린 개념이라는 행복한 확인.

마지막으로 신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택한 책들은 대체로 정신분석학과 철학, 그리고 인류학적 입장으로 나뉜다. 신화의 궁극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해 주는 것은 이 분야의 책들이다.

문학동네의 '신화상징총서'의 기획은 이 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미 나와 있는 《사랑의 이해》(하딩), 《인간과 성(聖)》(가이유와), 《통과제의와 문학》(비에른스), 《신비의 지식, 그노시즘》(위탕) 외에도 《신화와 형이상학》(귀스토르프),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뒤랑), 《디오니소스의 그림자》(마페줄리), 《성배전설》(본느프와), 《연금술과 야금술》(엘리아테), 《성배와 연금술》(산소네티) 등 본격적인 신화학 서적들이 준비중이다.

앞서의 책들만큼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책은 아니지만 융과 그의 제자들이 공동 집필

# 베스트셀러 목록의 과제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 ‘신화’를 주제로 한 책들

- 한국의 창세신화/김현선/길벗
-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유시주/푸른나무
- 문명 속으로 뛰어든 그리스신들/강응천/사계절
-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진 시노다 불린/또하나의문화
- 우리 속에 있는 남신들/진 시노다 불린/또하나의문화
- 세계의 영웅신화/조셉 캠벨/까치
- 신화의 힘/조셉 캠벨/고려원
- 사랑의 이해/하딩/문학동네
- 인간과 성/가이유와/문학동네
- 통과제와 문학/비에른스/문학동네
- 신비의 지식, 그노시즘/위태/문학동네
- 인간과 상징/용/까치

한 《인간과 상징》(까치)은 학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신화연구서이다. 차근 차근 읽어나가면 독자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자아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을 위해 기획된 이 책은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엉킨 실타래처럼 보이는 신화적 상징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신화를 알리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중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이 책의 장점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책을 읽고 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의 삶이 실은 얼마나 빈곤한 것인지, 뻘한 일상적 자아의 내면 속에 얼마나 풍요로운 신화적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화를 이해하는 시각은 신화를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건들의 알레고리로 보는 견해로부터 심리학적 자료로 보는 시각을 거쳐, 신비한 지식의 보고로 여기는 태도에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근자에는 신화의 함의가 정치·사회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신화는 ‘신성함’에 대한 것이다. 신화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연상하는

것은 해석학적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신화를 요청하는 대중의 욕구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할리우드의 상업주의적인 신화해석을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대중은, 일각의 지적 엘리트들이 경멸의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듯이 단순한 세기말 현상으로서 ‘영웅의 도래’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도피적인 욕망 때문에 신화 속으로 숨는 것도 아니다.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 어떤 수준의 대중에게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화를 요청하는 대중은 무지한 대중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가장 지적인 인사들일 수도 있다. 다만 문화적 지배받은 생산자들이 아닌, 숨어 있는 문화적 대중일 수도 있다.

## ‘영성’ 갈망의 징후

감히 단언하거나 ‘신화의 귀환’은 인류가 조용히 영성(靈性)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한가지 징후다. 인류는 아스팔트 밑에 깔아버렸던 신비라는 귀신들을 환대하기 시작했고, 철학과 과학 대신에 종교(그러나 그 종교는 도그마화한 기존 종교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개인이 각자의 종교적 의미를 깨닫는 ‘자기종교’이다)와 예술을, 그리고 새로운 인문학적 지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보이는 것, 아는 것만을 숭앙했던 인식론이 존재론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이제 인식의 ‘타자’는 근대적 이성이 가르쳐 왔듯이 악마가 아니라 천사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천사는 세계라는 검은 땅을, 존재라는 짐승을 가져온 천사이다.

당분간 신화적 인간은 여전히 “이거 바보야냐?”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거꾸러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쪽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아느냐고? 나는 ‘알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또는 ‘사랑한다’. 미지(未知)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단 한 가지뿐이다. 즉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면 미지는 없다. 대신 그대는 그대라는 좁은 감옥에 머물러 있는 수밖에 없다. ❖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도하는 관행은 부지불식간 서울 중심가에 있는 대형서점 판매량만으로 제한되었다. 교보문고·종로서적·영풍문고·을지서적 등 4곳의 판매순위를 종합하거나 아니면 이중 2~3곳의 자료를 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양식이다.

이것은 옳은 방법인가. 한국의 특별한 상황으로는 굳이 잘못된 것이라고 따져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 책이 팔리고 있는 곳은 사실상 이 대형서점들이다.

유수한 출판사들도 몇몇 대형서점에서의 판매에 의지해 출판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현상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건일 뿐이지, 베스트셀러 목록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단위나 거점단위로 책 판매목록이 같은 것일 수 없다는 문제이다. 최근 이 4개 대형서점의 판매순위를 함께 보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이를 보면 서울 광화문과 종로라는 좁은 운동장에서든 목욕의 차가 얼마나 크게 나는가를 알 수 있다. 4곳 서점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고르게 목록에 오르는 것은 10개 목록 중 최대 4개 정도이다. 그래서 4곳 목록을 다 모으면 언제나 베스트셀러 10위의 목록이 20개 정도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1Km 이내에서도 독자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서울 중구나 종로구를 왔다갔다하는 시민의 의사로만 결정되는가를 반문해 봐야 한다.

우리에게 베스트셀러 목록의 보도는 특별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책을 직접 만지며 고르는 독자가 극히 적으므로 대부분의 독자가 그저 화제에 오르거나 뉴스화될 때 그것만으로 선택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사서 보았더니 별것 아니더라 하는 후회를 하는 독자가 물론 한둘이 아니다. 여하간 이런 정황에 있으므로 베스트셀러는 단지 참고

할 만한 목록이 아니라 출판판매의 대세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이 관건을 제한된 구역에서 단지 기록정리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공

식화하는 것은 바른 선택인가. 이를 정리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외국 이야기를 하기는 싫지만, 많은 나라들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실제로 사실의 집계이다. 발행부수도 사실이고, 판매부수도 사실이다. 이는 세무행정에서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란 시중에서 소화된 부수의 결과를 보는 사후의 통계적 의미가 큰 것이지, 그것이 색다른 명예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책과 연관된 각종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노벨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베스트셀러란 오히려 곧 잊혀질 가능성이 더 많은 책 목록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야만, 오직 그 몇종만이 팔릴 수 있다는 판매조건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 다시 출판사 자신이 베스트셀러 만들기 위해 조작적으로 개입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요즘처럼 그 어느때보다 책이 안팔리고 있을 때는 베스트셀러 만들기가 더 힘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근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그 어느 책을 읽어서 과연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지식으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 베스트셀러의 빈곤성은 또다른 불행을 느끼게 한다.

진정한 베스트셀러는 기록으로서는 실제로 일정부수 이상 팔린 것이어야 하고, 내용상으로는 한 시대의 감각적 흐름만이라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어야 최소한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표본이 정확하지도 않고,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단순히 지금 다른 책보다 한편이라도 더 팔렸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베스트셀러 목록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다. ❖

표본이 정확하지도 않고,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단순히 다른 책보다 더 팔렸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베스트셀러 목록은 보도하지 않는 게 옳다.